

농어촌공사 경남본부, 우기대비 건설현장 143개소 안전 점검

윤 최원태기자 | 승인 2025.05.08 17:34 | 10면

우기 대비 재해 사전예방으로 현장 안전관리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함안지사에서 시행 중인 강주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현장 우기대비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)는 함안지사에서 시행 중인 강주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현장 우기대비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경남본부 13개 지사, 총 14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우기대비 점검계획의 일환으로, 손영식 본부장이 직접 강주배수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공사는 이번 점검을 끝으로 관내 전 건설현장에 대한 우기대비 상황 점검을 완료하였다.

공사는 우기철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본부 내근부서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사의 자체계획과 연계한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

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등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장과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 점검한 결과, 총 107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.

경남지역본부장은 “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,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은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, “무엇보다도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공사는 올 한해 저수지, 배수장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94지구 사업비 801억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시행하고, 총 8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229억원을 집행, 5월 말까지 배수시설 사용전 검사 및 시운전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. 최원태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최원태기자